

울림과 잠김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발행: 천주교 디트로이트 대교구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 발행인: 오승수 시몬 신부 Pastor: Rev. Simon, Seungsoo Oh
편집: 본당 편집회 | 홈페이지: <https://standrewkimdetroit.org/detroit/bbs/monthly-meeting/>

부활 제5주일 (2025년 5월 18일)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묵시 21,4)



주님이 내 기도 들으셨네 김옥순 막달레나 수녀 출처:가톨릭 신문

김옥순 막달레나 수녀님은 1977년 성바오로딸 수도회에 입회하였고 1988년 이후 어린이 그림책 '완이의 기도'등 세 권을 출판하면서 신앙의 감동과 애뜻한 정감이 우러나오게 하는 성화를 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2003년부터 2023년 까지 16차례 개인전을 하였으며 다양한 단체전 및 초대전에 참가했고 2015년 가톨릭 미술상 회화부문에서 본상을 받았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3,34)



1. 시작 기도

- (십자성호를 그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오늘 모임을 시작하면서, '본당 설정 50주년 기념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심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사랑으로 당신의 교회를 살피시는 하느님 아버지,
본당 설정 50주년을 맞는 저희 본당 공동체에 주님의 축복을 내리소서.

디트로이트 성 김대건 한인 성당, 저희 공동체는 미국이라는 이국땅에서 가톨릭 한인 공동체를 꾸려 왔습니다.
5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부족한 점도 있었겠지만 공동체의 신앙과 사랑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채우면서
공동체를 꾸려 왔습니다. 50주년을 맞은 지금 저희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창조 때 세상을 보시고 하셨던 말씀, “보시니 참 좋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해주시지 않을까 희망해 봅니다.

저희는 한인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한국 순교자의 신앙에 바탕을 두고 신앙생활을 가꾸어 왔습니다.
사제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의 강인한 순교 영성은 이국땅에서 저희들의 삶의 뿌리를 굳게 내리는 데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순교 성인들의 강인함을 본받아 저희는 공동체를 잘 지키고 가꾸었고,
앞으로도 그 모습을 이어가겠다고 50주년을 맞이한 올해 이시간 함께 다짐해 봅니다.

주님, 사랑과 일치와 공동체를 가꾸어 나아가려는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소서.
주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저희로 하여금 주님 사랑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게 하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식탁에서 받은 사명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고,
성찬의 식탁에서 받은 은총을 가난한 이웃들과 기꺼이 나누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또한 저희 본당 공동체의 모든 가정에도 항상 함께하시어 거룩한 주님의 성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마침내
저희 본당 모든 교우들이 영원한 생명에도 함께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 시작 성가로, 셀라 성가 374번 “하늘 엄마”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374 하늘 엄마

김정식

1.라 일 락 꽃 향 기 질 은 푸 른 오 월 에
2.종 달 새 - 소리 맑 은 푸 른 오 월 에

5.사 랑 스 런 하늘엄 마 보 고 싶 어 - 요 이 세
아 름 다 운 하늘엄 마 그 리 워 저 - 요 언 제

9.상 모 든 형 제 하 늘 나 라 오 라 고 언 제
나 어 디 서 나 하 느 님 께 오 라 고 오 늘

13.나 우 리 위 해 기 도 하 시 는
도 우 리 에 게 손 짓 하 시 는

17.영 - 원 한 사 랑 이 신 하 늘엄 마 께
아 름 다 운 친 구 이 신 하 늘엄 마 께

21.안 개 꽃 - 사 랑 엮 어 드 리 고 싶 어 요
진 실 한 - 사 랑 엮 어 드 리 고 싶 어 요

2. 인사 나누기 및 출석 확인

- 참석한 반원들과 초대 손님이 있으면 인사를 나누고 반원들의 근황과 소식을 나눕니다.

3. 기도 지향 나누기

- 오늘 반모임에서 개인이나 공동체에 필요한 기도 지향이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

4. 성경을 읽기 전에 바치는 기도

말씀이신 주님, 성령의 힘으로 제 마음을 열어 주시어, 당신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느끼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새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5. 하느님 말씀

- 어느 분이 (혹은 한 분씩 돌아가면서) 다음의 성경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3,31-33 1,34-35)

방에서 31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32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33 애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34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35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요한 묵시록 21,1-5나)

나 요한은 1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2 그리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차리고 하늘로부터 하느님에게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3 그때에 나는 어좌에서 울려오는 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보라, 이제 하느님의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에 있다. 하느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처하시고 그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느님 친히 그들의 하느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4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5 그리고 어좌에 앉아 계신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 각자 마음에 와닿는 말씀 (최소 한 단어 / 최대 한 문장) 뽑는 시간을 1분간 가지겠습니다.
- 10분 동안 각자 선정한 말씀을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6. 성경을 읽은 후에 바치는 기도

말씀이신 주님, 말씀 안에서 새긴 당신의 사랑을 제 삶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삶 속에서 당신을 믿고 당신께 기도하고 당신을 선포하며 성령이 주는 평화 속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7. 말씀과 생활 나누기

- 그 말씀을 왜 선택했는지 또 그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각자에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짧게라도 되도록 기도한 모든 이가 나누도록 합니다.)

지난달 반모임 말씀과 생활 나눔

- “결코 믿지 못하겠소”(요한 20,25) 말씀으로 기도하며, 제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않을 때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의심이 들어요.”라고 제 자신을 털어 놓고 기도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CT]
- “네 손가락을 여기 대 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요한 20,27)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 수난의 상처를 고스란히 간직하신채 나타나셨습니다. 당신의 상처를 보여 주심으로써 부활은 구체적이고 실재적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CT]
- “문이 다 잠겨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요한 20,26) 말씀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과 두려움에 마음의 문이 닫혀있다 하더라도 당신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닫히고 잠겨있는 그 마음의 문을 넘어 예수님께서서는 나를 찾아오신다는 그분에 대한 경외심이 생깁니다. [AA2]
-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요한 20, 26) 말씀으로 기도하며,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믿는 자들의 마음의 위대함이 느껴졌습니다. [AA2]
-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요한 20,22) 말씀으로 기도하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모시려면 늘 깨어있어야겠습니다. [NV1]
-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요한 20, 26) 말씀으로 기도하며,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말씀이신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NV1]
- 용서해 주면 (요한 20, 23) 말씀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단지 평화를 그저 바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우리 모두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것 같습니다. 하느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오려면 먼저 서로를 용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움이 나 자신을 가로막고 그것으로 인해 더 이상의 영적 성장이 어렵습니다. [NV 2]
-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요한 20,27) 말씀으로 기도하며, 믿는다는 것은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그분에대한 신뢰이며 굳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의심을 버리고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 속에 이러한 믿음이 자리 잡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NV 2]
- “보지 않고 믿는 사람” (요한 20, 29) 말씀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이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 옆에 계시다는 확신을 줍니다. 토마스는 그런 주님을 직접 만날 수 있었으니, 그는 축복받은 사람이라 생각됩니다.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힘이기도 합니다. [NV 2]
-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 (요한 20, 31) 오늘 저는 반원 분들의 말씀에대한 나눔을 들으며 각자의 기도 안에 머물고 있는 듯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저도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NV 2]
- “우리는 주님을 보였소.” (요한 20,25) 말씀으로 기도하며, 세월호 사고 때 저는 한국에 있었습니다. 회사가 광화문에 있어서 출퇴근할 때마다 유가족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들을 볼 때마다 분노가 올라와 힘든 시기였는데 그때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한국 방문은 정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교황님에대한 기억이 깊게 남아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황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황님을 통해 “주님을 보였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RC2]

-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요한 20, 26) 이 구절의 다음 구절이 ‘평화가 너희와 함께’ 인데요, 평화가 오려면 예수님이 오셔서 한 가운데에 서 계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힘듦, 고난, 폭풍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계시다면 아무리 힘든 그때도 평화를 얻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 이번 부활을 보내면서 다시 예수님을 내 한가운데로 모시고 싶습니다. 내 한쪽 구석 말고 한가운데에 모시고 싶습니다. [RC2]
- “평화가 너희와 함께” (요한 20,26) 말씀으로 기도하며, 오늘 복음은 2 년 전, 제가 맨 처음 반모임에 왔을 때 나뉘던 같은 복음입니다. 그때 ‘평화가 너희와 함께’ 구절을 골랐었습니다. 당시 제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제 마음에 평화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2 년 후인 지금 돌아보면, 저는 그동안 많은 평화를 얻어왔고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참 평화는 다른 사람들이나 물질이 아닌, 오직 하느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RC2]
-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요한 20,29) 말씀으로 기도하며, 성당 안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성당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함께 해 주심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RC2]

8. 건의 및 기타 토의

- 우리 반에서 본당에 건의하거나 기타 토의할 사항에 대해 나눕니다.
- 참석 반원의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득표를 받은 사항을 본당에 건의합니다.

9. 공지 사항

- 본당 공지 사항과 구역, 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10. 차기 모임 장소와 날짜 정하기

- 다음 모임의 장소와 날짜를 정합니다.

11. 마침 기도

- 본당 소공동체를 위하여 모두 다 함께 ‘소공동체 모임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항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반 모임에 참석한 모든 가정을 위하여 ‘가정을 위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시며 가정생활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저희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가 성가정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가정생활의 자람이시며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저희 집안을 위하여 빌어주시어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의 은총으로 영원한 천상 가정에 들게 하소서. 아멘.



12. 마침 성가

-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생활 성가 셀라책 209번 '새로운 계명'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 SCAN ME

새로운 계명

209

요한 13,34-35

김정식

D Bm Em A7 F#7 Bm

내 가 너 희 를 사 랑 한 것 처 럼 너 희 도 서 로 사

7 Em E7 A7 Aug D Bm Em A7

랑 하 여 라 세 상 사 랑 들 그 것 을 보 - 고 서 로

13 D G D/A A D D7

사 랑 하 리 라 모 두 내 계 오 리 라 1.주
2.주

17 G D B7 Em A7

님 내 이웃 의 소 박 한 웃 음 에 서 당 신 을 보 니
님 내 이웃 의 가 난 한 기쁨 에 서 당 신 을 보 니

23 D D7 G D D7

다 음 - 주 님 내 이웃 의 말 없 는 눈물 에 서 당
다 음 - 주 님 내 이웃 의 끝 없 는 슬픔 에 서 당

29 G E E7 A7 Aug D Bm

신 을 느 낱 니 다 음 - 이 제 우 리 는 새 로
신 을 느 낱 니 다 음 - 이 제 우 리 는 새 로

35 Em A7 D G D/A A D

운 계 명 따 라 서 로 사 랑 합 니 다 가 난 한 마 음 으 로
운 계 명 따 라 서 로 사 랑 합 니 다 가 진 것 을 나 누 며

- (십자성호를 그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본당 설정 50주년 기념 기도 봉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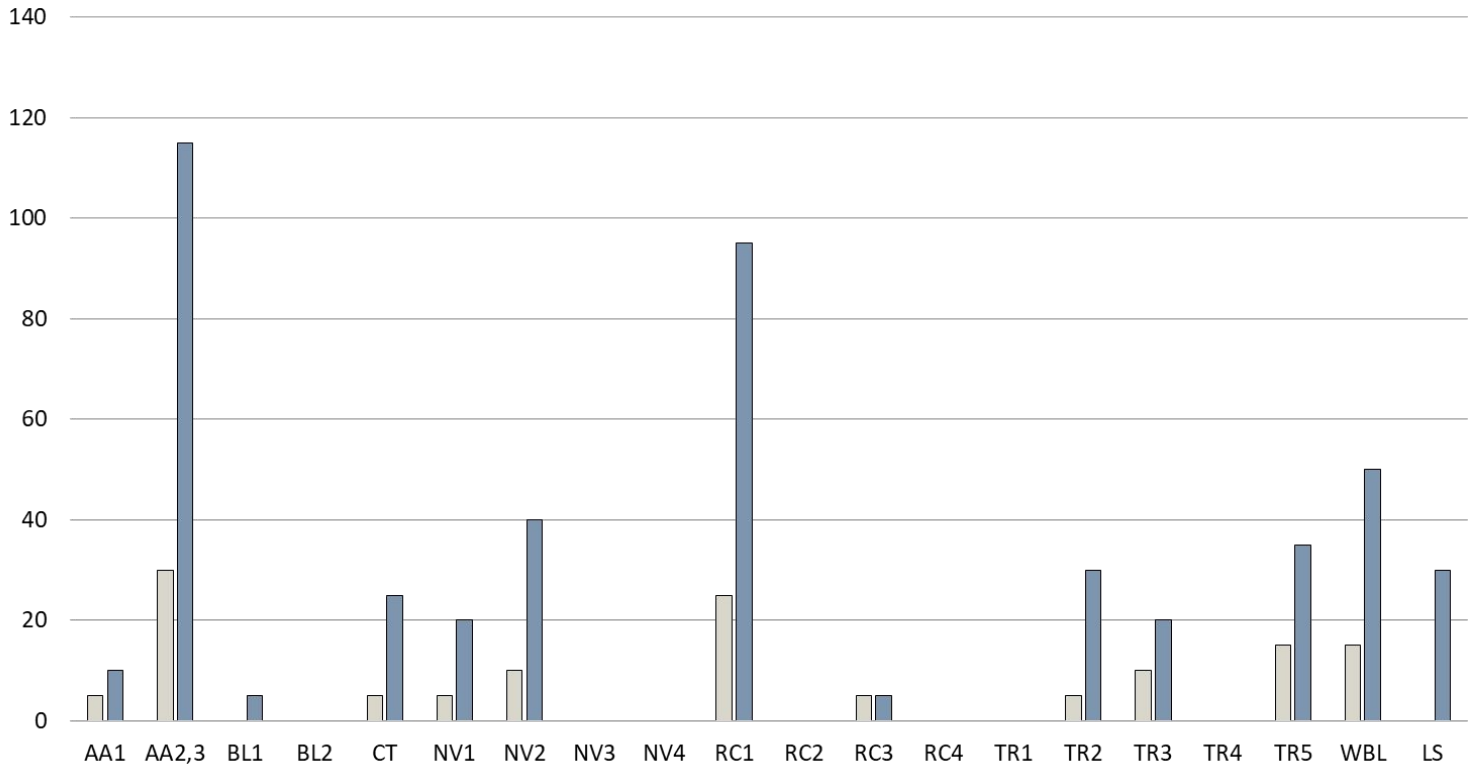
	미사봉헌	목주기도 (단)	본당50주년 기념기도문	영적묵상 (시간)	화살기도	사제를 위한 기도	수도자를 위한 기도	선행
APR 2025	600	3940	354	77	485	244	208	68
누적합계	879	13694	1284	246.4	1791	1088	987	212



2025 성경공부 및 성경잔치 역사서 말씀과 함께

반별 숙제 제출 현황

- 사무엘기 하권
- 누적



매달 통독 분량을 공부하고 내용을 정리해서 개인별로 제출하시면 반별로 취합하여 숙제 한 건당 5점씩 반별점수로 11월에 열리는 성경잔치에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정해진 양식의 종이로 제출하시는 경우 사무실 교육부 트레이로, 파일로 제출하시는 경우 홍세훈 교육부장 이메일(sehoon9224@gmail.com)로 매달 마지막 수요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본당 설정 50주년 기념 자선 바자회

— 주님 부활의 기쁨을 나눔으로 실천하며 —

지난 4월 20일, 주님 부활 대축일을 맞아 본당 설정 50주년을 기념하는 자선 바자회가 많은 교우분들의 참여와 관심 속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바자회는 본당 신자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한국 순교복자 수녀회’를 통해 가난한 이웃을 돕기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하여 준비되었으며, 부활 대축일 미사 후 본당 마당과 실내 곳곳에서 정성껏 펼쳐졌습니다.

다양한 물품과 먹거리

야외 공간에서는 총 14팀이 참여한 **Garage Sale**과 **Lemonade Stand**, 뜨개 용품,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잔디밭 놀이 공간이 마련되어 어른과 아이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실내 로비에서는 성물 판매 부스 3팀이 다양한 품목을 선보였으며, 주방과 친교실에는 다채로운 먹거리 부스 12팀과 따뜻한 분위기의 카페 공간이 운영되어, 교우들 간의 정겨운 대화와 교류가 이어졌습니다.

공동체의 협력과 참여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주차 안내는 본당 활동단체에서 도와주셨으며, 마무리 시간에는 많은 교우들께서 자발적으로 뒷정리에 참여해 주셔서, 우리 공동체의 따뜻한 마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목회(유한구 요셉 회장님)는 본당 설정 5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에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자선 바자회를 통해 교우 간 사랑을 나누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작은 희망이 전해지길 바라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본당(오승수 시몬 주임신부님)은 주님 부활 대축일에 많은 교우분들이 기쁘게 함께해 주시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바자회 준비에 수고해 주신 모든 봉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총구역(천기승 요셉 총구역장님)에서는 “본당 신부님께서 잘 이끌어 주셨고, 사목회에서도 잘 받쳐 주셨지만, 본당 신자 개개인과 활동단체들의 적극적인 헌신과 참여가 없었더라면 원래 계획보다 훨씬 더 성황리에 바자회를 마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신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박수를 보냅니다.”라고 마음을 전했습니다.

50년의 신앙 여정을 기념하며 공동체의 발전과 기도

이번 자선 바자회는 디트로이트 성 김대건 안드레아 본당이 걸어온 50년의 신앙 여정을 기념하는 한편, 앞으로도 계속될 사랑과 나눔의 실천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우리 본당이 앞으로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걸으며, 더 많은 이웃들에게 희망과 따뜻함을 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드립니다. 이번 바자회를 통해 보여준 교우들의 협력과 사랑은 우리 본당의 미래를 더욱 밝고 희망차게 만들 것입니다.



“주님, 프란치스코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프란치스코 교황 2025년 4월 21일 선종 -



프란치스코 교황님(Holy Father)의 유언

‘자비로이 부르시니’(Miserando atque Eligendo)

지극히 거룩하신 성삼위의 이름으로, 아멘.

저의 지상 삶이 저물어 감을 느끼며, 영원한 생명에 대한 굳은 희망 안에서, 제가 묻힐 자리에 대한 마지막 바람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언제나 저의 삶과 사제직, 주교직을 우리 주님의 어머니이신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께 맡겨드려 왔습니다. 그러므로 제 육신이 부활의 날을 기다리며 교황 대성전인 성모 대성전에서 쉬게 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저는 제 마지막 지상 여정이 이 유서 깊은 성모 성지에서 끝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모든 사도 여정의 시작과 끝마다 이곳에 들러 기도하며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께 저의 지향을 온전히 맡기고 그분의 자애로운 모성적 보살핌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의 무덤은 앞서 언급한 교황 대성전의 파올리나 경당(로마 백성의 구원 경당)과 스포르차 경당 사이에 있는 측면 회랑의 안치 공간에 마련하여 주시기를 청합니다. 이는 첨부 자료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무덤은 지면 아래 있어야 하며, 단순하고 특별한 장식 없이 ‘Franciscus’(프란치스코)라는 이름만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제 무덤을 마련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 한 은인의 후원금으로 충당할 것입니다. 저는 이미 그 후원금을 성모 대성전으로 송금하도록 조치해 놓았고, 이 리베리오 의전 사제단 특별 책임자인 롤란다스 마크리카스 몬시놀에게 적절히 지시했습니다.

저를 사랑해 주셨고 저를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실 분들에게 주님께서 마땅한 상급을 내려 주시기를 빕니다. 제 삶의 마지막에 맞이하는 고통을, 온 누리의 평화와 만민의 형제애를 위하여 주님께 봉헌합니다.

성녀 마르타의 집에서
2022년 6월 29일
프란치스코

<원문 Testament of Holy Father Francis, 2022.6.29., 이탈리아어도 참조>

영어: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en/speeches/2025/april/documents/20250421-testamento-francesco.html>

이탈리아어: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speeches/2025/april/documents/20250421-testamento-francesco.html>

출처: 한국천주교주교회의 <https://www.cbck.or.kr/RomanoPontifice/Franciscus/testament>



2025 성경 공부

사무엘기 하권 말씀과 함께

다윗이 계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비아냥거리는 미칼에게 “**주님 앞에서 내가 흥겨워한 것이요. 나는 이보다 더 자신을 낮추고, 내가 보기에 더 천하게 될 것이요.**” (2사무 6,21-22)라고 말한 부분을 여러 번 읽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큰 성취감을 느꼈을 때 감사의 기도도 하지만, 감사의 시간보다 자족하거나 자기 성취감에 빠져 있는 시간이 더 길 때가 많았습니다. 하느님께서 다윗에게 조건 없는 축복을 약속하신 것도 어찌 보면 이런 겸손함이 다윗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아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 낮아지고 자신이 보기에 더 천하게 되고 싶다는 말을 반복하여 읽으며 제 마음 중심에 항상 하느님이 계시도록 빈 공간을 마련해 두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사무엘기 하권을 공부하며 위의 다윗의 말과 7장의 다윗의 감사기도, 22장의 다윗의 승전가를 연이어 읽으며 하느님이 저의 전부 되심을 청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 글 | 최승원 엘리사벳

사무엘기 하권을 읽고 다윗도 결국 약한 인간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밋세바 사건처럼 사람들은 실수하고 부족한 모습을 숨기고 싶을 때가 많은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숨기는 걸 당연한 듯이 하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잘못을 인정하고 하느님께 다시 돌아가는 거라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일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수하면 안 된다고, 항상 남들보다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는 부족하지만, 하느님께 의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분께서 높은 데에서 손을 뻗쳐 나를 붙잡으시고 깊은 물에서 나를 끌어내셨네.”**(2사무 22,17)라는 구절을 통해 모두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채우기 위해 겸손함과 이해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아직 신앙심이 깊진 않지만, 이번 성경 읽기를 통해 완벽해지려고 애쓰는 대신, 하느님께 나의 약함을 솔직히 드러내는 용기를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이 마음 잊지 않고 부족함 속에서도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싶습니다. — 글 | 이충렬(예비사)

“나는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평온하게 해 주겠다.” (2사무 7,11)

지난 주말 생각지도 못한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인지 이유도 알 수 없는 갑작스러운 일이었기에 하루 정도 너무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일을 해결해야 할지 몰라서 더 속상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살면서 어쩌면 이렇게 억울한 일도 없겠다 싶기도 했고, 기도조차 되지 않아 원망만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제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억울했던 이유는 제가 다른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모습에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어떻게 보고 계시지를 생각해 보니 마음이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의 신앙생활이 모범적이지도 않고 남들에 비해 많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부족한 저를 늘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언제나 저를 응원해 주시는 저의 아버지 하느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또 한 번의 시련을 겪으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아픔에 힘들어하는 순간에도 깨달음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두렵지 않게 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나는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평온하게 해 주겠다”**고 하셨던 말씀을 제게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 글 | 이수연 안젤라

“다윗은 인구조사를 한 뒤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주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런 짓으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당신 종의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제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2사무 24,10)

죄를 깨달았을 때 숨거나 변명하지 않고 곧바로 하느님께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본받고 싶었습니다. 비록 죄를 지었으나 다윗은 숨지 않고, 하느님께 바로 나아가 회개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저 자신을 변명하고, 제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들어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저의 잘못을 보시고도 안타까워서 ‘이제 그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너라’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 저는 여전히 주님이 아닌 저 자신의 힘과 능력에 의지하여 주님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곧바로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였듯이 저 또한 저의 죄를 숨기지 않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청합니다. 자비로운 사랑이신 하느님을 경외하며 믿습니다. 제가 두려움에 빠져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때에도 저를 당신의 손안에 맡기고,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신뢰하고, 제가 주님께 저의 진정한 마음과 희생 제물을 담아드릴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저의 이기심과 교만을 용서하시고 항상 아버지 당신만을 의지하게 해 주소서. 오늘도 저를 아버지 당신 뜻 안에 살게 해 주소서. 제힘을 버리고 제 뜻을 버리고, 오직 아버지 당신의 뜻대로 하게 하소서. 아멘! — 글 | 김지혜 히야친타

이번 사순시기에 Gregorio Allegri의 가장 유명한 곡인 ‘Miserere Mei Deus’를 특송으로 하는 미사에 우연히 참례하게 되었습니다. 성체를 영하기 위해 제대 앞으로 나아가는 순간 노래가 시작되었고, 밧세바의 일로 주님께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아니 통곡하며 울부짖는 다윗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성체를 모시고 소프라노의 high C가 울려 퍼질 때는 이미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처럼 온마음과 몸을 다해 참회를 해 보았던 적이 있었던가? 적당한 선에서의 회개는 아니었는지, 주님과 타협하려 한 건 아니었는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성왕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뛰어난 정치력과 군사적 성과 때문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에 전적으로 순명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나는 네가 싫다’ 하시면, 나로서는 그저 그분 보시기에 좋으실 대로 나에게 하시기를 바랄 뿐이오.”**(2사무 15,26)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달아나는 위기의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이 어떠하더라도 따르겠다는 다윗의 순종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앙인의 자세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 글 | 정성은 막센시아

“임금님께서서는 임금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임금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미워하십니다.” (2사무 19,7)
주님, 성경을 읽어도 성전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저를 찾지 않으시는 건지, 제가 주님을 외면하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는 지금, 제가 성경을 읽어도 되는지, 나눔을 해도 되는지, 성당을 다녀도 되는지, 여러 가지 생각으로 참 복잡하기만 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저 자신도 답을 잘 몰라 헤매고 있습니다. 제 신앙생활이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하지만 주님을 떠날 용기조차 없습니다. 주님을 떠난 제 삶이 아마 더 아플까봐 두려워 당신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되뇌입니다.

“주님, 정녕 당신은 저의 등불이십니다. 주님께서서는 저의 어둠을 밝혀 주십시오.” (2사무 22,29)
주님, 저의 어둠을 밝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간절히 바라는 저를 내치지 마옵시고, 저의 삶을 당신의 빛으로 가득 채우소서. 아멘! — 글 | 김미경 낸시

“그분께서 높은 데에서 손을 뻗쳐 나를 붙잡으시고 깊은 물에서 나를 끌어내셨네. 나의 힘센 원수에게서, 나보다 강한 적들에게서 나를 구하셨네.” (2사무 22,17-18)

사무엘기 하권 마지막 부분 ‘다윗의 승전기’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다윗은 여러가지 흠결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 대한 그 믿음으로 칭송받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하느님을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겸손함과 하느님께 자신의 마음 전부를 진솔하게 펼쳐놓을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저는 부러워합니다.

하느님을 알고부터 무심코 사용했던 언어나 습관적인 행위를 문득문득 되돌아보게 됩니다. 겸손도 그 하나입니다. 상대방보다 자신을 낮추고 예의라는 포장 속에서 어느 정도는 표리부동한, 가식적인 모습으로 나타남을 보았습니다. 원수, 적은 나의 바깥에서 나에게 해를 입히는 나쁜 사람을 일컫는 줄 알았습니다. 하느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방법은 달랐습니다. 당신께서 지으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이라고 깨우쳐 주십니다.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내 안의 무엇’이 진짜 원수이고 적임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미사 때 ‘내 탓이요, 내 탓이요’를 진심을 담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 다가가려는 원의를 보시고 그분께서 높은 데에서 먼저 손을 뻗어 나를 붙잡으시고, 혼돈과 미망의 깊은 물에서 나를 끌어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잘나 보이고 싶은 욕심과 내가 더 많이 누리고 싶은 이기심에 굴복하지 않게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 글 | 박영선 테레사

내가 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해 나누지 못한다고 생각했고, 여유가 생기면 나눌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나누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큰 작든 나누는 것이 중요하며 그 나눔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 글 | 왕승진 유스티노

사무엘기 하권에 나오는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선택을 보면서, 제가 살아오면서 선택한 많은 것들이 지금의 제 삶의 과거이고 현재이며 몇몇 선택은 저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선택을 하는 당시에는 몰랐지만 시간이 흘러서 그 선택들이 좋아 보이는 결과를 낳기도 하고 어리석은 선택으로 힘겨운 책임을 져야 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저의 삶이 주는 교훈을 기억하며 유한한 제가 공동선을 추구하는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 글 | 김혜림 크리스티나

사울도 죄를 지었고,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나도 죄를 지었습니다. 사울은 하느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고, 다윗은 간음하고 살인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누구의 죄가 더 클까요? 사울은 죄를 짓고 변명하였고, 체면을 지키는 데만 열려하였습니다. 다윗은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소.”** (2사무 12,13)하고 바로 인정했고 고백하였습니다. 사울은 용서받지 못했고, 다윗은 용서받았습니다. 지금의 나는 어떤가요? 하느님은 죄를 지은 후 통회하는 나를 용서하고자 하십니다. 현재도 고해성사를 통해 그분은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 글 | 유명미 율리아



2025 성경공부 및 성경잔치 역사서 말씀과 함께

역사서 말씀을 함께 통독하고 공부하여 성서에 대한 깊이를 더하는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본당 교우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 대상 : 전신자
- ◆ 성경공부 기간 :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 ◆ 성경잔치 날 : 2025년 11월 22일 토요일

매달 통독 분량

월	성경 역사서 통독 분량	신부님 성서공부 강의 녹음파일 분량
1월	여호수아기 총 24장	62~65 (개론) 66~70 (여호수아기 본문)
2월	판관기 총 21장 & 룻기 총 4장	71~75 (개론) 76~80 (판관기 본문) & 82~87 (룻기 본문)
3월	사무엘기 상권 총 31장	88~90 (개론) 91~100 (사무엘기 상권 본문)
4월	사무엘기 하권 총 24장	101~108 (사무엘기 하권 본문)
5월	열왕기 상권 총 22장	108~118 (열왕기 상권 본문)
6월	열왕기 하권 총 25장	119~127 (열왕기 하권 본문)
7월	에즈라기 총 10장	143~145 (에즈라기 본문)
8월	느헤미야기 총 13장	146~150 (느헤미야기 본문)
9월	토빗기 총 14장	151~152 (토빗기 본문)
10월	유딧기 총 16장 & 에스테르기 총 10장	152~154 (유딧기 & 에스테르기 본문)

- ◆ 공부 방법 : 개인 또는 그룹으로 매달 분량을 통독 공부하고 개인별로 내용 정리 해서 숙제 제출 / 그룹은 자유롭게 구성 가능하나 숙제는 반별로 취합 / 숙제 한건 당 5점 부여해서 반별로 점수 누적 / 매달 반모임지에 누적 점수 공지
- ◆ 숙제 제출 방법 : 정해진 양식의 종지로 제출하는 경우 사무실 교육부 트레이로, 파일로 제출하는 경우 홍세훈 교육부장 이메일 sehoon9224@gmail.com 로 매달 마지막 수요일까지 제출